

면접 달인 프로젝트

의대

2023 대비

의대 면접 기출



오르비 현강 교재(<https://class.orbi.kr/>)

Zola 개요

1. 의대 중에서 면접 문제를 공개하는 대학들을 여기 저기 긁어 모았음.

- (1) 대학별 정리 자료 아님.
- (2) 년도별 정리 자료 아님. 연습용으로 선별된 자료들임.

2. 편의상 대략적인 주제 중심으로 묶었음. 주제는 아래와 같음. Zola의 임의적인 분류니까 따지지 말 것!

- (1) 일반 인성
- (2) 일반 상황
- (3) 의료 상황
- (4) 기타

3. 지원대학 유형이나 내용 너무 따지지 말고 전부 다 보고 들어갈 것. 면접은 1개라도 많이 아는 것이 일단 유리함. 할 말이 있어야 함.

(1) 단순 인성, 기본 질문

지원자가 경험해본 조별과제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례는 무엇입니까? 그 과제에서 어떤 역할을 하였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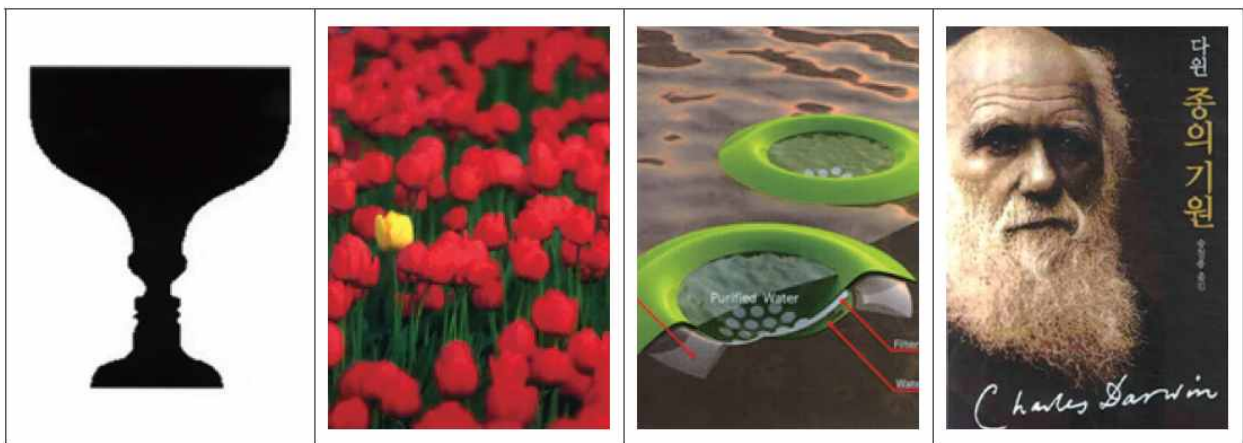
자신이 세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던 일 중 가장 공들여서 했던 사례를 말해주세요.

면접질문:

“모집단위에 지원한 이유를 본인의 진로희망과 연관 지어 이야기해보세요.”

30초 이상 ~ 1분 이하의 답변 영상 제한시간을 엄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제시한 그림을 모두 이용하여 "의사는()다"라는 주제로 5분 간 발표하시오.



- * 2번째 그림은 중간 왼쪽에 노란 튕립이 있고 나머지는 모두 빨간 튕립임.
- * 3번째 그림은 오염된 강에서 물을 정수할 수 있는 장치임.

인생의 라이벌이 누구입니까? 그 라이벌을 통해 자신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인생에서 목숨을 걸 만큼 가치 있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사회의 학력이나 외모에 대한 고정관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 고정관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보시오.

자신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그 장점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좋아하는 명언이나 문구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설명해보시오.

올해 계획한 일 중에서 가장 잘한 일과 못한 일에 대해 이야기해보시오.

장래 이루고 싶은 꿈이 무엇입니까? 지원학과와 관련지어 설명해보시오.

졸업 후 자신의 전공 지식과 재능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계획입니까?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해 향후 어떤 노력을 할 계획입니까?

최근 접한 뉴스 중 자신이 전공하려는 분야와 관련된 것에 대해 이야기해보시오.

고교시절 가장 어려웠던 과목이 무엇입니까?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2) 일반 상황, 일반 시사

사례를 읽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우리 반에 지적장애가 있는 급우A가 있다. A는 대부분의 수업을 자신의 수준에 맞는 별도의 학급에서 받지만 일부 수업과 생활은 우리 반에서 같이 한다. 어떤 급우들은 A가 수업시간에 엉뚱한 질문을 많이 하고 쉬는 시간에도 귀찮게 한다고 불평을 한다. 최근 급우B가 A에 대해 반장에게 심하게 불평을 하였다. 반장은 나와 친한 친구 몇 명을 불러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하였다.

1.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2. 급우B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3. 응시자가 반장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재환은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힘들게 공부하고 있는 의대생이다. 자존심이 강한 재환이는 그런 사정을 내색하거나 남에게 손을 벌리기를 끔찍이 싫어해서 차라리 휴학을 할까 생각중이다. 친구 재환이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궁리하던 경민이는 어느 날 학교 게시판에서 가난한 학생에게 조건없이 수여되는 장학금 공고를 보고 재환이에게 그 소식을 알렸다. 그런데 재환이는 해당 장학금을 받게 되면 집안 사정이 공개되므로 장학금 신청을 꺼린다.

질문

1. 응시자가 경민이라면, 재환이를 어떻게 설득하겠는가?
2. 신청기간이 하루 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설득에 실패했다. 경민이는 자기가 재환이 이름으로 대리 신청을 해서라도 장학금을 타도록 할까 고민한다. 응시자가 경민이라면, 대리신청을 하겠는가?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 시국에 대응하여 국가 예산을 투입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고 추가 지급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찬반 의견을 주십시오.

아래 제시문을 읽고, 면접위원 질문에 답하시오.

대학교 합창 동아리에서 한 달 후 공연을 앞두고 있다. COVID 19 백신 접종 완료 여부에 따라 오프라인 연습 참가를 제한할지에 대하여 합창단 단원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다. 함께 모여 노래 연습을 해야 하므로 온라인 연습을 불가능하다.

주영이는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은 연습에 참가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였다.

수민이는 “백신 접종은 개인의 선택인데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 나는 백신을 맞지 않았고 앞으로도 맞지 않을 것이다.”라고 반발하였다.

온라인으로 투표한 결과 25:5로 미접종자는 연습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우세하였다.

질문) 지원자가 이 동아리의 리더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나는 최근 노숙자가 아파트 앞 시민공원에 터를 잡고 생활하는 것을 보았다. 나는 주민들이 ‘노숙자 때문에 불쾌하고 불안하다.’, ‘어디에다 신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등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종종 들었다. 오늘 하룻길에 주민 A가 그 노숙자에게 옷가지와 먹을 것을 챙겨주시는 걸 보았다.

- [문제 1]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 [문제 2] 주민 A의 행동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 [문제 3] 응시자가 ‘나’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동주택의 관리자인 지원자는 A동 801호로부터 '701호에서 청국장을 끓이고 있고, 그 냄새가 공동주택 전체에 퍼져서 불쾌하다'는 항의전화를 받았다. 이에 지원자가 701호를 방문하여 민원내용을 전달하자, 701호 주민은 '내 집에서 내 마음대로 청국장도 못 끓여먹느냐'며 항의하였다.

지원자는

- 1) 어떤 의견에 공감하시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2) 공동주택의 관리자로서는 이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 Zola Guide 이와 유사한 문제들 진짜 많음. 이걸 입시 문제가 아니라 우리 ‘현실’이고 ‘삶’임. 제가 사는 아파트 윗 층 501호 정말 때리고 싶다!!!!

나는 육군 상사이며 전사 통지관으로서 병사들이 복무 중 사망했을 때 유가족들에게 이 소식을 직접 전달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오늘은 외국에 파병된 한 장병이 근무중 순직했다는 사실을 유가족에게 전달해야 한다.

전사자 이름 : 김무명(22세) 계급 : 상병

소속 부대 : 레바논 평화유지단 동명부대

사망일시 : 2022년 1월 12일 오전 10시

사망원인 : 작전 중 전사 유서 : 없음

추모 일시/장소 : 2022년 1월 15일부터 국군 수도병원

유가족 : 김유명(부) 이무명(모)

전사 통지문을 간략하게 작성하고 직접 통지해 주기 바랍니다.

👁 Zola Guide 상황에 대한 공감 능력 필수. 연기력이 있으면 좋을 듯. 이거 배우 지망생들에게 연습시켜도 될 듯함.

(3) 의료 상황, 의료 시사

독거노인 A씨는 말기암 환자입니다. 최근에 개발된 고가의 항암제로만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A씨는 치료비를 지불할 능력이 없습니다.

1. 당신이 의사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2. 당신이 환자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최근 사회적 이슈인 낙태죄 폐지 논란에 대하여 본인의 의견과 그 이유를 말해주세요.

<부가질문>

1. 미혼모의 원치 않는 출산과 양육에 대하여 말해주세요.
2. 태아의 선천성 기형이 발견되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말해 주세요.
3. 태아의 생명은 존중받을 가치가 없나요?(배아의 생명과 신생아의 생명의 가치가 다른가요?)

[주문제] A: 의사, B: 환자(약혼자), C: 사촌 동생

A는 의사이다. A의 환자 B는 드러나지 않는 우울증과 높은 자살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A는 B로부터 아무에게도 자신의 정신질환과 관련한 어떤 것도 이야기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A는 가족 모임에서 사촌 동생인 C를 오랜만에 만나, C의 결혼 예정자가 B인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C는 B의 질환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단계문제]

1. 학생이 'A 의사'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2. B(환자)가 A(의사)와 C가 친척인 것을 알게 되었다면 어떠한 감정이겠는가?
3. 학생이 C이고, B가 A에게 치료받고 있음을 알았다면 어떤 기분을 느끼겠는가? 또, 어떻게 하겠는가?
4. 당신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해결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다음 상황을 숙지하고 면접관의 질문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개발도상국인 A나라에서 시작된 정체불명의 감염병은 여러 나라로 전파되어 곳곳에서 환자가 발생하였다. 국제사회가 이 질병의 전파를 막기 위해 협력에 나섰고 한국도 이에 동참하여 A나라에 10여명의 의료진을 파견하였다. 그러던 중 파견된 의료진 중 일부에서 환자가 발생하였고, 한국 정부는 질병의 국내 전파를 막기 위해 감염자의 귀국을 제한하고 제3국에서 치료 받도록 권고하였다.

1. 위 상황에서 발생된 문제(이슈)들을 나열하시오.
2. 1번에서 답한 문제(이슈) 중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어떤 것 입니까? 그리고(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어떤 조치가 필요합니까?
3. 한국 정부의 방침에 대한 학생의 생각은?

최근 서울 강서구에서 PC방 손님이 직원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당시 범죄 희생자를 치료했던 의사가 상세한 경위를 소셜 미디어(속칭 SNS)에 게시하였다.

소셜 미디어에 치료 정황을 게시한 의사의 행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여론이 있는 반면, 어떤 이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두고 있다.

질문1.

이 사건에서 의사가 자신이 치료한 환자에 대한 정보를 소셜 미디어에 게시한 행위를 옳다고 생각합니까?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왜 그렇게 평가하는지 이유를 두 가지 이상 말하시오.

질문2.

의사에게는 인문학적인 소양도 요구된다. 지원자는 인문학적 소양을 높이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가? 우리 학교에 입학하게 된다면 인문학적 능력을 키우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WHO와 여러 선진국들은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하여 코로나 문제가 심각한 아프리카 저개발 국가에 백신을 무상으로 제공해서 코로나 확산을 막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찬반 의견을 주십시오.

당신은 감염내과 및 역학 전문의로, 현재 의료시스템이 낙후된 (가) 지역에서 급속히 번지고 있는 감염병 A를 연구하기 위한 WHO의 유행성 감염질환 연구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선정이 되었다. 100만 달러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팀을 꾸려 감염병 A가 창궐하고 있는 (가) 지역으로 출발하였다. 이번 프로젝트의 목적은 (가) 지역에서 감염병 A의 유병률을 파악하고 원인균을 검사하여 균의 돌연변이 유무를 조사하는 등 이를 통해 기존의 감염병 A의 약보다 좋은 효과를 지닌 약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기초 연구를 하여 감염병 A가 혹시 모를 판데믹으로 번질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다. 연구팀은 연구원의 안전을 위해 소량의 감염병 A의 약을 가지고 왔다. 현지 연구를 위해 (가) 지역에 정착을 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당신은 예상보다 의료시설이 부족하고 많은 수의 주민들이 감염병 A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

그러던 중 팀원 중 일부가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주민들을 위해서 연구팀을 위해 가지고 온 감염병 A의 약을 주민들에게 나누어 주자고 주장을 한다.

당신은 팀 책임자로서 갈등을 하게 된다. 당신 팀이 가지고 온 감염병 A의 약을 주민들에게 나눠줘야 하는가? 아니면 주민들에게 이 사실을 숨기고 연구팀을 위해 남겨두어야 하는가?

그리고 당신은 팀 책임자로서 어떤 결정을 하든 당신의 결정을 팀원들이 따르도록 설득을 해야 한다.

※ 제시문을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

국내 한 의과대학에서 진단검사의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의사 A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학회에 참석하기 위해 비행기에 탑승 중이었다. 샌프란시스코 도착까지 약 1시간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을 때 쯤, 한 승객이 심장마비로 갑자기 쓰러져 의사를 찾는다는 기내 방송이 들려왔다. 의사 A는 심장마비에 대한 응급처치에 대해 이론적으로는 잘 알고 있었으나, 실제로 본인 단독으로 환자에게 응급처치를 해 본 적은 없었으며, 수련의 시절 응급실에서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심폐소생술(CPR,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과 약물치료를 시행하는 것을 몇 차례 도와 준 경험이 있는 정도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곤경에 처한 사람을 구해 주지 않은 행위를 처벌하는 이른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직접적으로 시행하지는 않고 있다. 대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비의료인과 업무수행 중이 아닌 의료인에 의한 응급처치와 관련하여 발생한 상해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면책해 주고 있다. 그러나 중대한 과실의 기준이 비의료인과 의료인에게 다르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의료인의 과실로 인한 환자 사망 시에는 형사책임이 부과된다. 올해 5월 항공기 내에 구비된 의료장비와 약품용량이 항공법 기준을 충족한 국내 국적기에 탑승중인 한 외국인이 심장마비로 쓰러져 기내에 있던 의사가 응급처치를 시도했으나 결국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본인이 위에서 언급한 진단검사의학과 교수인 의사A라 가정하고,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응급처치 시행 여부와 그 이유에 대해서 토론하시오.

■ 다음 제시문 <라>를 읽고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하시오.

<라> 대학병원의 심장내과 전문의 Y는 국제 학술회의 참석을 위해 인천공항으로 가는 도중 교통사고로 인한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도로가 막혀 다소 빠듯한 시간에 공항에 도착하였다. 황급히 체크인을 하려고 줄을 선 상황에 여행객 중 50대 남성이 가슴을 움켜쥔 채 쓰러진 것을 목격하였다. Y는 체크인 라인에서 나와 공항 직원에게 자신이 심장내과 전문의임을 알리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취하였고, 50대 남성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은 덕분에 인근 대학병원으로 후송되어 다음날 퇴원하였다. Y는 환자 이송 후 다시 체크인 수속을 밟으려 했으나 이미 시간이 지나 탑승수속을 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국제 학술회의 참석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항공권 및 호텔 예약금도 항공사 및 호텔 측의 환불규정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여 환불을 받지 못하였고 학회참석 포기과 함께 금전적 손실을 입었다.

[문제 1] 제시문 <라>와 같은 상황에 지원자가 처했을 때 향후 의사가 된 뒤 어떠한 결정을 할 것인지에 대해 말해보고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시오.

[문제 2] 심장내과 전문의 Y가 감수해야 할 불가피한 학술회의 불참과 항공료 및 호텔비용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말해 보시오.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하시오.

우리나라에서 장기이식 대기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뇌사 장기 기증자는 감소하고 있다.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사망하는 환자가 한 해 2천 명을 넘는다. 우리나라의 폐이식 대상자 선정 기준은 대기자 등록 순서 뿐 아니라 응급도를 참조한다. 인공호흡기 또는 *에크모에 의존하고 있는 중증 환자에게 우선적으로 이식 수술을 시행한다. 반면, 일본에서는 대기자 등록 순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동일하나 *에크모에 의존하는 중증 환자와 60세 이상의 고령 환자에게는 폐 이식 수술을 시행하지 않는다.

* 에크모: 체외막 산소공급장치로 환자의 심폐기능이 정상적이지 않은 경우 부착하여 환자의 순환기능을 보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장치. 주기능은 이산화탄소를 걸러내고 산소를 주입한다.

[질문 1] 폐이식 대상자 선택 결정에서 한국과 일본의 기준 중 어느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질문 2] 52세 소방관으로 가장인 환자와 25세의 폭력전과자인 환자 중에서 누가 폐이식의 우선 대상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질문 3] 스페인을 비롯한 몇몇 나라에서는 장기 기증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옵트 아웃(opt-out)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옵트 아웃은 개인이 행정적 절차를 통해 장기 기증에 대한 명시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장기 기증에 대한 잠재적 동의자로 추정해 뇌사 시 장기 적출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우리나라에서도 옵트 아웃 제도를 시행하자는 주장이 있으나 아직 시행되지 못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4) 기타

지금 본인은 의과대학 입시 면접에 들어와 있습니다. 본인이 우수한 성적을 가질 수 있었던 원인으로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 모두 중요하게 작용했을 것입니다. 모두 중요했겠지만, 둘 중에 어느 것이 학업성취도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까?

1.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2. 본인의 생각을 증명할 만한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설명해주세요.

OO 인공지능연구소 소장은 서울에서 개최된 한 포럼에서 국내 자동차·금융·정보통신(IT) 등 다양한 산업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윤리적 딜레마와 기술 발전 방향에 관한 흥미로운 화두를 다음과 같이 던졌다.

“도로 왼쪽에는 어린이가, 오른쪽에는 노인이 걸어가고 있을 때 자율주행자동차가 사고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가정해 보지요. 인공지능(AI)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결과도 중요하지만, 본질은 내린 결정에 대한 이유를 인공지능 스스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공지능기술이 발달할수록 향후 이 기술을 활용하는 산업분야는 다양해질 것이며 따라서 인공지능의 역할 또한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이에 인공지능 개발자인 당신은 '인공지능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에 대해 고민하여 '생명 존중'을 최우선의 원칙으로 결정하였으며, 추가적으로 다음 여섯 가지 원칙에 대해 고려하고 있다.

- (가) 공정성(차별과 편견이 없을 것)
- (나) 공익성(사회에 혜택과 이익을 줄 것)
- (다) 개인정보 보호(프라이버시를 존중할 것)
- (라) 투명성(결정에 대한 설명이 가능할 것)
- (마) 합법성(법과 규칙을 준수할 것)
- (바) 인간적 가치 추구(인간의 존엄과 권리에 부합할 것)

인공지능 개발자로서 (가)~(바) 중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원칙 세 가지와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유의사항

- ※ 제시문에 주어진 정보만을 고려할 것
- ※ 응답지 작성 시 선택한 사항의 번호를 큰 글씨로 작성할 것

※ 제시문을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S)

통제 불능의 전차가 다섯 명의 인부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 만약 전차가 이대로 계속 달려간다면 인부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당신은 달려오는 전차와 다섯 명의 중간쯤에서 선로를 가로지르는 육교 위에 서 있다. 그리고 당신 옆에는 커다란 짐을 진 인부 한 명이 서 있고, 인부를 선로로 밀어 떨어뜨리면 전차를 멈출 수 있다. 당신이 스스로 뛰어내릴 수는 없다. 짐도 없이 전차를 세우기에는 당신의 몸집이 작기 때문이다. 당신이 짐을 옮겨 짊어질 시간도 없다.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단, 법적 책임에서는 자유롭다.

이상은 전차 딜레마 실험에 대한 설명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 낯선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서 다섯 명을 구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가? 대다수 실험 참가자는 육교 아래로 사람을 떠밀어 다른 다섯 명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행동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공리적 답변이 아니다. 한 명을 떠밀어 다섯 명을 구하는 것은 더 큰 행복에 이바지한다. 그렇지만 이것은 여전히 잘못된 일처럼 보인다.

[문제 1]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의 상황에서 어떤 답변을 선택했을까?

1)(보충) 대부분의 사람들과 다른 답변을 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문제 2] 본인의 선택은 무엇인가?

[문제 3] 도덕적 선택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은 무엇일까?

☞ Zola Guide 'S'대 치대 제시문임. 면접 문항은 복원된 자료와 함께 Zola가 임의적으로 만든 문항들이 있음. 이 문제는 생활과 윤리 교과서에서 다루는 내용이기도 함. 사탐 선택자들이 무시되긴 하지만 사탐 교과서를 무시하진 마시고, 생활과 윤리 교과서에 실린 자료들, 탐구활동 이런 것들은 보고 들어가면 좋음.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하시오.

코로나 19 공포가 미국 전역을 휩쓸고 있지만 언제 끝날지 장담할 수 없어 더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국의 국가 의료보험과 달리 미국은 민영의료보험 제도로 인해 보험 미가입자들이 검사와 치료를 꺼리는 상황이 나타나면서 우려를 낳고 있다.

미국 매사추세츠 주에 거주하는 B 씨는 지난 2월 말부터 가슴 통증과 고열로 세 차례 병원을 방문했고, 결국 코로나 19 판정을 받았다. 그런데, 의료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던 그녀가 공개한 코로나 19 진단 검사비용은 약 110만 원이었으며, 치료비로 청구된 금액은 무려 약 4280만 원이었다. 그녀는 '이 금액을 갚으려면 10년은 더 걸릴 것'이라며 호소했다.

한국에서 최근 코로나 19에 감염된 한 환자는 약 19일 동안 치료를 받았고, 병원 측으로부터 명세서를 받았는데, 진료비 총액이 970만 원이었고 환자부담총액은 140만 원이었다. 하지만 이 금액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했다. 결국, 이 환자는 병원비 중 의료용품비 4만여 원만 부담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미국 내 의료보험 미가입자는 약 2700만 명 이상이며, 이는 미국 전체 인구의 약 9%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국 내 한국 유학생들은 서둘러 한국으로 입국하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

"미국 4천만 원-한국 4만 원, 극과 극 코로나 치료비"

[문제 1] 두 가지 방식의 장점과 단점을 말해 보시오.

[문제 2] 어느 방식이 낫다고 생각하는지 말해 보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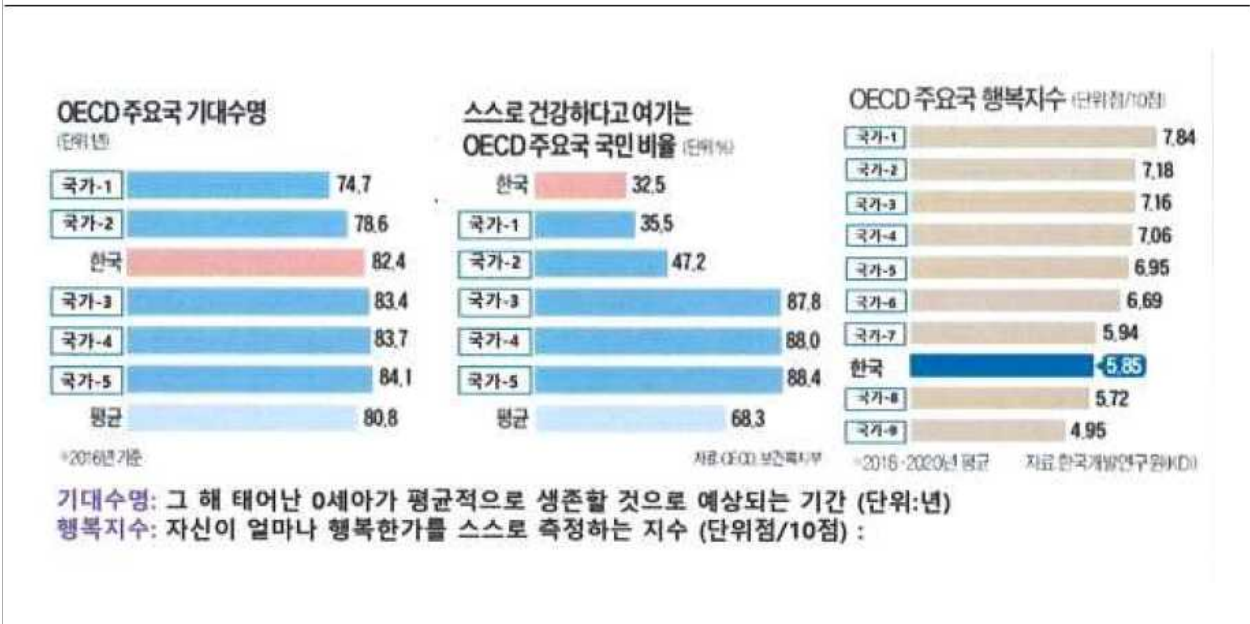
2)[문제 3] 우리나라 의료 보험의 문제점과 해결 방법을 말해 보시오.



[2015년 3세 시리아 난민아이가 표류하다가 해안가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된 장면을 찍은 사진으로 터키 여기자 닐류페르 데미르가 촬영 (풀리처상 수상)]

1. 이 사진을 보고 지원자의 생각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해 보세요.
2. 본인이 이런 장면을 목격하였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3. 이 사진들을 통해 난민문제와 같은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증가될 수 있는 반면에 인간의 존엄성을 간과했다는 논란도 있었다. 이런 논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아래 제시문을 읽고, 면접위원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위의 자료가 나타내는 바를 설명하고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제시하시오.

우리는 일주일에 보통 70~100시간을 앉아서 보낸다.
 이렇게 앉아서 일하는 사람은 스마트폰 화면과 컴퓨터 글자판 위에서 하루 최대 수 킬로미터를 움직이지만 발은 한 달 내내 1km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로 했다.
 냉장고에는 남미에서 온 바나나와 아보카도가 들어있다.
 모두 전기가 일상화된 탓이다.

밤을 밝히는 전기는 인간 생물학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 Zola Guide 약대임.

【문제 1】 아래의 제시문 (가)~(다)를 읽고서 물음에 답하시오.

【제시문 가】

인간 외의 동물들도 폭군이 아닌 한, 어느 누구도 그들에게서 빼앗아 갈 수 없는 자신의 권리를 획득하는 날이 올 수도 있다. 프랑스인들은 피부가 검다는 것이 한 인간에게 멋대로 고통을 주고도 보상하지 않고 내버려 뒀도 될 이유가 될 수 없음을 이미 발견했다. 언젠가 다리의 수, 피부의 용모 여부 등이 감각이 있는 존재에게 아무런 보상없이 고통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마찬가지로 인정하게 될 것이다. 그 밖에 무엇이겠는가? 이성의 능력인가, 아니면 혹은 소통하는 능력인가? 그런데 완전히 자란 말이나 개는 생후 1주일이나 1개월이 된 유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말이 더 잘 통하고 더 합리적이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무엇이 달라지겠는가? 문제가 되는 것은 그들이 이성을 가질 수 있는가, 그들이 말을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그들이 고통을 겪을 수 있는가이다.

【제시문 나】

우리 인간은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 즉, “어떤 결정과 어떤 행동이든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은 이들에게는 자명하다. 수 세기 전부터 전해 내려와서 서양의 사고에 깊이 뿌리박혀 있는 이 관념에 따르면, 인간은 오성과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동물과는 구분된다. 인간은 어째서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은 인간이 자유롭게 행동하고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도덕원리를 해치는 잘못된 행동을 한다면 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우리의 ‘형법’이 자유의지에 대한 이념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다지 놀랍지 않다.

【제시문 다】

마음은 철학적 개념인 반면 지능은 생물학적 개념이다. 지능은 환경에 따라 상대적이다. 즉 특정 환경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뜻한다. 진화 과정에서 생존과 번식에 성공하면 그것은 지능이 있다고 이해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지능도 인간중심적으로 생각하는 데 익숙해져 있다. 혹은 인간 아동과 비슷한 지능을 가진 동물들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각각의 종(種)마다 일정 수준의 지능을 갖추고 있다”라고 말해야 적절하다. 그래서 정글에서는 침팬지가, 바다에서는 돌고래가 더 “똑똑하다”.

우리는 혹시 인공지능(AI)을 인간과 너무 유사하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건 아닐까? 나는 인간의 지능이나 마음이 인공지능의 기준이나 모델이 될 필요가 없다고 본다. 그럴 경우에 인공지능이 다른 동물 종처럼 지능을 갖춘 새로운 종으로 출현하게 될지도 모른다. 물론 나는 생물과 인공지능 사이에 차이가 크다고 본다. 하지만 인간의 지능을 기준으로 동물의 지능을 평가해서는 아니 되듯이 인공지능도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인간중심주의에서 벗어나는 게 기본이라는 말이다.

【문제 1-1】 동물 및 인공지능과는 달리 인간만이 완전한 권리를 가진 법적 주체라고 주장한다면, 이를 정당화하는 여러 논거를 위 제시문을 통해 설명하시오. (15점)

【문제 1-2】 인공지능(AI)의 활용이 의사에게 좋은 점과 나쁜 점, 사회 전체 차원에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을 각각 설명하시오. (15점)

※ 다음 제시문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가] 두 가지 서로 다른 금속판을 도선으로 연결하여 전해질 용액에 넣게 되면, 이온화 경향이 큰 금속은 전자를 내놓고 산화되어 양이온을 형성하면서 전해질 수용액으로 녹아 들어간다. 이때 금속이 내놓은 전자는 도선을 따라 흐르게 되며 반대쪽의 금속판 표면에서 환원 반응을 일으킨다. 볼타는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여 최초의 화학전지를 만들었는데 이를 볼타전지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금속의 이온화 경향은 $K > Ca > Na > Mg > Al > Zn > Fe > Ni > Sn > Pb$ 순으로 감소한다.

[나]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전기에너지는 발전소에서 생산되는데, 단위 시간 동안 생산하는 전기에너지를 전력이라고 한다. 전력은 전압과 전류의 곱으로 주어지며 전압은 전류와 저항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 대부분 발전소는 전력이 필요한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먼 거리에 위치하며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에너지를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수송할 필요가 있다.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은 154 kV, 345 kV, 765 kV 등의 초고전압으로 변환하여 송전하며, 가정이나 사업장에 가까워짐에 따라 송전 전압을 점차 낮추어 최종적으로 220 V 전압으로 변환하여 공급한다. 전력의 수송에 사용되는 송전탑은 철골로 만들어지는데, 부식을 늦추기 위해 아연이 도금된 철강을 사용한다.

[다] 우리 몸 안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신경계의 기본 단위인 뉴런이 자극을 받으면 뉴런 세포막의 전기적 특성이 변화하는데, 이러한 변화를 흥분이라고 하며 뉴런에서 흥분이 발생하면 흥분은 축삭 돌기를 따라 이동하는데 이런 현상을 흥분 전도라고 한다. 흥분 전도는 세포막에 존재하는 이온 통로와 Na^+-K^+ 펌프, 막전위의 변화로 개폐가 조절되는 Na^+ 통로와 K^+ 통로의 작용으로 조절된다. 자극을 받지 않아 신호를 전달하지 않고 있는 뉴런의 막전위를 휴지 전위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70 mV 정도이다. 뉴런에 역치 이상의 자극이 가해지면 막전위는 +35 mV 정도까지 증가한다.

[라] 뉴런에는 축삭 돌기가 말미집으로 싸여 있는 말미집 뉴런과 말미집이 없는 민말미집 뉴런이 있다. 말미집은 여러 겹의 슈반 세포막으로 싸여 있는 구조이며 말미집 뉴런에는 말미집으로 싸여 있지 않은 마디가 있는데 이를 랭비에 결절이라고 한다.

[문제 1] 제시문 [가]와 [나]를 참고하여 초고압 송전 방식이 지니는 장점과 단점을 구체적으로 구술하시오. 또한, 송전탑의 건설에 아연이 도금된 철강을 사용하는 이유와 원리에 대해서 구술하시오. [20점]

[문제 2] 뉴런의 흥분 전도 과정에 관해서 Na^+-K^+ 펌프와 이온 통로, 막전위의 변화로 개폐가 조절되는 Na^+ 통로와 K^+ 통로 등의 작용에 근거하여 설명하고, 말미집의 역할에 관해서 구술하시오. [20점]

* 아래 지시문을 읽고 면접위원 질문에 답하시오.

In recent years, many refugees* have been escaping Yemen from civil war and hunger. Since 2016, more than 500 Yemeni Refugees traveled as tourists on Jeju Island and then applied for asylum**. Jeju had allowed 30 days of visa-free stay for foreigners. According to current refugees law, as long as they enter the Jeju and apply for refugee status, they can stay legally up to three years even if the application is rejected. And then, the Government banned Yemeni from entering Jeju without a visa and limited their residential area in Jeju.

Many Koreans have called for the government to accept them on humanitarian grounds but others demanded to deport*** them for fear of potential crime, losing jobs, and religious reasons. Refugees have a limited opportunities to work because of language barriers and social prejudices, some of them spend all their money and become homeless.

* Refugees: 난민

** asylum: 망명

*** deport: 추방하다

질문1.

국민들이 난민 수용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두 가지 이상 설명하시오.

질문2.

지원자는 예멘 난민 수용을 찬성하나요? 반대하나요?



[제시문] 이 사진은 명왕성 부근을 지나고 있던 보이저 1호의 망원 카메라를 지구 쪽으로 돌려서,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의 모습을 찍어보자는 ‘코스모스’의 저자 칼 세이건의 제안으로 1990년 2월14일 촬영한 것이다.이 제안에 대해 당시 반대 의견이 만만하지 않았다. 과학적인 관점에서 별로 의미가 없는 일이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망원경을 지구 쪽으로 돌린다면 자칫 태양빛이 망원경의 카메라 주경으로 바로 들어갈 위험이 있다. 이는 망원경으로 태양을 바로 보면 실명될 수 있는 것과 다름없는 위험한 일이라고 미항공우주국(NASA) 과학자들은 주장했다. 그러나 새로 부임한 우주비행사 출신 리처드 트롤리 신임 국장은 지구의 모습을 촬영하자는 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태양계 바깥으로 향하던 보이저 1호의 카메라를 돌려 지구의 모습을 촬영하기로 결단을 내렸다. 그리고 그날, 지구-태양 간 거리의 40배나 되는 약 60억km 떨어진 태양계 외곽에서 바라본 지구의 모습은 그야말로 ‘먼지 한 톨’이었다.

칼 세이건은 이 광경을 보고 “여기 있다! 여기가 우리의 고향이다”라고 말하였고, ‘창백한 푸른 점’(Pale Blue Dot)이라고 명명한 그의 소회는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질문) 사진이 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 동의하면 왜 그렇다고 생각하는가?

질문) 망원경 방향을 지구 쪽으로 돌린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질문) 망원경 방향을 돌린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었는가. 본인이 책임자였다라면 망원경 방향을 돌렸겠는가?

형법은 제10조에서 심신장애자란 제목으로 이들이 범죄행위를 한 경우 이들의 책임능력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10조 제1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심신상실자의 책임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즉, 심신상실자는 생물학적 또는 심리학적 비정상으로서 책임능력이 인정되지 않아서 형벌을 받지 않는다. 제2항은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고 하여 심신미약자는 한정책임능력자로서 형의 필요적 감경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심신미약자란 자기행위에 대한 완전한 통찰·조종 능력을 갖고 있지 않지만 그렇다고 완전한 심신상실 상태에 이르지도 않은 자로서, 형벌을 감경해 준다.

사례 1

노숙자 A씨(45)는 1년 전부터 공원에서 숙식을 해결하다가 6개월 전부터 “내 집을 침범하는 악마를 칼로 물리쳐라”라는 환청이 매일 들리기 시작했다. A씨는 현실과 환상을 구분하지 못해 찌푸린 표정으로 고통스러워하며 공원을 배회하다가 공원에서 노숙을 한다고 야단치는 젊은 여성을 칼로 찔러 살해했다.

사례2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연구를 진행한 대학교수 B씨(45)는 노벨상 수상 소식을 들은 후 축하파티에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기억이 전혀 나지 않을 정도로 술을 마신 후 차에서 잠들었다. B씨는 다음날 아침 자신이 음주상태로 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노인을 치어 사망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연실색을 하였다.

문제 1. A씨와 B씨 중 누가 더 큰 형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이유는?

문제 2. 당신이 피해자인 여성 또는 노인의 가족이라면, 가해자 A씨 가족 또는 B 본인이 찾아야 진심으로 반성하며 사죄하면서 형량 감형을 위한 탄원서를 써달라고 읍소했을 때 가해자를 위해 탄원서를 쓰겠는가?

문제 3. 심신미약자 감형 의무조항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와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를 각각 설명하시오.

제공된 지문을 활용하여 미래 의사가 갖추어야 될 역량이 무엇인지 4분간 발표하세요.

【자료1】

태양계철침 8개의 행성이 주변을 돌고 있는 항성이 지구로부터 2545광년 떨어져 드라코 별자리에서 발견됐다고 미항공우주국(나사, NASA)이 14일 밝혔다고 미 CNN과 영국 BBC 등이 보도했다. 이는 태양계 외에서 발견된 행성 시스템 중 가장 큰 것이다. 이 항성은 케플러-90으로 명명됐다. 케플러-90은 태양보다 좀 더 크고 조금 더 뜨거운 것으로 추정된다. 8개의 행성들 중 7개는 이미 발견됐던 것들이다. 나사는 그러나 구글의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케플러-90에 또 하나의 행성이 더 있음을 새로 밝혀냈다. 케플러-90로 명명된 새 행성은 매우 작아 불안정한 상태라고 나사 과학자들은 말했다. 구글의 AI전문가로 이번 새 행성 발견에 참여한 크리스토퍼 샬루는 이로써 케플러-90계는 태양계와 똑같이 8개의 행성을 거느린 최초의 항성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AI의 기계학습 능력을 통해 새 행성 발견 능력이 크게 높아짐에 따라 앞으로 이 같은 항성이 더 많이 발견될 수 있으며 더 많은 행성을 거느린 항성도 발견될 수 있을 것이다.

【자료2】

현대는 인간 자체가 스스로에게 커다란 문제로 떠오른 시대이다. 과학 기술은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발전해 어느 새 인간을 복제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과학 기술이 현대에만 고유한 것은 결코 아니다. 인간이 짐승의 뼈나 돌로 도구를 만들고 불을 사용하던 때부터 인간은 이미 기술인이었지만, 기술의 단계가 지금처럼 정밀하고 세련된 것이 아니었을 뿐이다. 현대인들은 표면적으로 기술을 제어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구성원들의 연대감을 촉진시키는 도덕적 분위기를 잃어버린 지 이미 오래이다. 물론 이런 추세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실로 엄격한 수직적 사회 질서가 깨지고 보다 많은 개인의 자유를 약속하는 것으로 인식된 과학 기술, 그리고 정치 제도의 혁명적 전환은 인간을 개체화, 고립화시켰다. 세계 내에서의 자신의 위치에 대한 혼란스러움, 무제한적인 선택의 자유 앞에서 도피, 그리고 역설적으로 더 멀어지는 개인 상호간의 관계 등은 인간을 기계적이고 진부한 삶을 사는 동물이 되도록 만들었다.

【자료3】

거울신경세포(mirror neuron)는 이탈리아의 신경생리학자 리촐라티(G. Rizzolatti)가 1990년대에 처음 원숭이의 이마엽에서 발견했습니다. 다른 원숭이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거울처럼 똑같이 흉내내듯 활성화된다고 하여 거울신경세포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거울신경세포는 원숭이보다 사람에서 훨씬 발달해 있습니다. 덕분에 타인의 행동을 보고 있거나 해도 자신이 그 행동을 하는 것처럼 뇌의 신경세포가 작동합니다. 이때 활동하는 세포는 관찰자가 관찰된 행동을 똑같이 직접 할 때 작동하는 세포와 동일합니다. 거울신경세포는 타인의 행동을 관찰할 때만 작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행동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이야기만 듣고 있어도 작동합니다. 그런데 거울신경세포에서 일어나는 과정은 관찰자의 지나 생각과는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일어납니다. 어떤 행동을 인지하면 관찰자의 뇌는 마치 그 행동을 직접 행하는 것과 같이 작동하는 거죠.

【자료4】

미국식품의약국(FDA)이 CAR-T 세포 치료제 티사젠렉류셀(tisagenlecleucel 제품명 킴리아, Kymiah)를 30일 승인했다. 티사젠렉류셀은 카이메릭항원 수용체(CAR) T 세포 면역 요법으로, 적응증은 난치성 및 재발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 진단을 받아 소아 및 25세 미만 성인 환자다. 이번 승인은 티사젠렉류셀의 효능 및 안전성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난치성 및 재발급성 림프모구 백혈병 진단을 받은 소아 및 젊은 성인 환자 63명을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실시했다. 그 결과 티사젠렉류셀을 투여받은

지 3개월 이내 환자의 혈액학적 완전 관해율이 83%에 달했다. 부작용으로는 저혈압, 발열 등이 있다. FDA는 “소아 환자의 경우 사이토카인 방출증후군(cytokine release syndrome)으로 암세포 사멸 과정에서 생성된 사이토카인이 혈액으로 유입돼 저혈압, 발열 등의 부작용이 유발될 수 있어 약품 뒷면에 블랙박스 이 같은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료5】

원시 시대의 사제적 유형의 의사, 편협하지 않은 시각으로 인간 전체와 인간의 상황을 합리적으로 다룬 히포크라테스적 의사, 권위주의적이고 사변적 견해에 사로잡혀 있던 중세의 의사, 이모든 유형의 의사가 몇 세기 만에 근대의 자연 과학적 의사로 교체되었다.

제시문 [1]

다음은 아프리카에서 물을 공급하기 위해 고안된 도구들이다.

[사례 1] 플레이 펌프(Play Pump)

<p>특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물 펌프가 결합된 회전 놀이기구 2. 아이들이 플레이 펌프를 돌리면서 놀 때마다 지하수를 끌어올림 3. 물탱크에 광고를 유치하여 부가적인 수익을 기대함 4. 20L의 물을 끌어올리는 데 3분 7초 소요(손 펌프는 28초 소요) 5. 가격은 한 대당 약 1,700만원(손 펌프는 약 420만원)
<p>사진</p>	

(다음 면의 [사례 2]로 이어짐)

[사례 2] 큐 드럼(Q Drum)	
특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원통 가운데로 난 구멍에 끈이 연결된 형태의 물통 2. 알파벳 큐(Q)와 모양이 비슷하여 이름 붙여짐 3. 한 번에 약 50L의 물을 담을 수 있음 4. 물을 가득 채웠을 때 무게는 54.5kg이지만 이동 시 체감 무게는 4.5kg 5. 가격은 한 개당 6만원
사진	 <p>The image contains two photographs. The left photograph shows a red, ring-shaped plastic water container with a yellow handle on the right side. The right photograph shows two children in a rural, open field; one child is pulling a blue ring-shaped water container on a rope.</p>

☞ Zola Guide 생활과 윤리에 ‘적정 기술’과 관련된 사례임. 단, 생윤 선택자들도 잘 모름. 수능에 안 나와서. 입시 교육의 문제점임. 입시 문제에 안 나오면 안 봄.

[복원 문제] 해당 대학은 문항(질문 내용)을 공개하지 않음.

1. 두 제시문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추가 제시문> 사례 1은 부정적 결과, 사례 2는 긍정적 결과 나옴

2. 해결 방법은?

3.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는 여러 정책 중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정책은? 해결책은?

4. 우리 주변에 소수자들이 불편을 겪는 사례를 들어보라.

☞ Zola Guide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에 대해 객관적 자료들을 찾아볼 것.

Zola 간단 설명

- 1) 평균적인 사람들이 스위치를 돌려버리는 것보다 인부를 떠미는 데 더 강한 거부감을 보이는 것은 가슴의 지배력이 머리의 지배력보다 즉각적이고 강력하기 때문이다. 실험에 따르면, 실제로 사고나 질병으로 뇌의 정서 기능이 약화된 사람들은 인부를 떠밀어 다른 다섯 명을 살리는 게 더 도덕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https://www.khan.co.kr/culture/book/article/201702241915005>

- 2) 의료계쪽에서는 저부담-저보장(저급여)-저수가로 정리함.

“저부담-저급여-저수가, 양질의료서비스 걸림돌” - 의사신문

저부담-저급여-저수가의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양질의 의료서비스의 걸림돌이 되고 있고 의료보장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전문가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9일 오후 1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전 국민 건강보험 시행 30주년 기념 정책토론회'에서 윤석준 고려대 의대 교수는 ...



2019.07.19.

“저부담·저수가·저급여 → 중부담·중수가·중급여로 가야” - 의사신문

문옥륜 전 서울대 보건대학원장(사진)이 한국 건강보험의 발전방향으로 저부담·저수가·저급여의 늪...

